

‘푸른세상’ 아내들 손으로 만듭시다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녹색의 전화’ 대표)

연일 지면을 오르내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상황이
극도로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해야 할 때.
여성들, 특히 주부들이 그 주역으로 나서보자. 서구에서는
80년 초부터 이미 여성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사진/정혜옥 기자



매 일 보도되는 각종 강력사건과 민생관련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아득한 느낌이 든다. 전화를 빨리
끝내달라고 재촉하는 갓난아기 엄마를 살해한 사건,
추가요금을 낼 수 없다고 항의하는 여자승객을 성폭행
한 운전기사, 김치가 아니라 ‘금치’라는 말을 유행하
게 만들 정도로 하늘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 출근
길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만성적인 교통난... 도무
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다.

엙친 데 덩친 격으로 이번 대홍수 이후 그동안 잠잠
했던 전세값이 들먹거린다고 한다. 며칠전 한강둑이
무너져내린 고양군 일대를 돌아보면서 만났던 주민들
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가옥이 완전 침수되어
무너져버리고, 애써 지은 농사가 하룻밤 사이에 물거
품이 되어버린 수해지역의 농민들과 수많은 이재민들
이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
다.

사고현장을 다니면서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번 대홍
수가 정부당국의 무대비 상태와 임기응변적인 행정에
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주민들 모두가 이번 한강둑
붕괴사고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이구동성으로 주
장하고 있다. 지난 84년 대홍수 이후 주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호안 보수공사를, 설마하는 생각
과 예산핑계로 미루다가 이번 참사를 당하게 된 것이
다. 그저 급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행정운영
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전가하기에 바쁜
행정부의 관행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이러한 각종 문제들에 덧붙여 요즘은 빈도높게 신문
지면에 오르내리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오염
상황도 우리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나는 미국에 오면 달이 떠도 달을 쳐다볼 재미가 없어.” C박사의 조카딸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본즉 눈물겹더라는 것이다. 이 어른은 서울이나 부산에 계실 때 보름이 되면 어김없이 달을 보시면서, 북에 계신 사모님도 ‘저 달을 보겠지’ 하신 것이다. 같은 날, 같은 때, 같은 달을, 남과 북에서 같이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감격스러우셨던 것이다



미국 사는 조카딸이 C박사의 그런 심정을 헤아려 몇해 전에 북에다 서신을 띄웠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아무 소식이 없어서 아마 연락은 안 되나보다 단념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장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C박사 사모님의 친필 서신이었다.

그 편지의 첫머리는 ‘김일성 수령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되었으나 집안 사정은 소상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다. 북에 두고 온 두 아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공한 처지였다. 아들 한 사람은 아버지 뒤를 이어 의사가 되었고 또 한 아들은 과학자로 한 연

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한장의 편지가 뉴욕의 그 주소로 날아 들어왔는데 과학자인 아들이 국제회의에 참석차 외국에 나가서 띄운 그 사모님의 편지였다.

이 편지에는 ‘수령님’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던진 첫마디는 “C박사가 다시 장가 드셨는가?”—그것이 첫마디였다. C박사의 재혼 여부가 사모님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문제보다 백배 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그래서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40년 그리던 혈육만나고자북한행 아내 개가소식에 심장마비 소문

세번째 이야기는 미국 LA에 가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에 관한 것이다.

요새 불행한 사고로 그 분 성함이 신문에 자주 나타났지만 다만 K목사라고만 표시하여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실 그 어른을 이 이상 더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겠다.

K목사도 40년쯤 전에 월남하였다. 아마 1.4후퇴하던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 분은 부인과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단신 38선을 넘었다. K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지 한번도 옆을 보지 않았다. 노회나 총회에서 월남한 목회자들이 재혼할 수 있도록 법

적조치를 취하였으니 다시 장가들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 분은 절대 응하지 않았다.

K목사는 미국서 공부를 마치고 LA의 유명한 영락교회 담임목사가 되어 그 깨끗한 생활과 힘있는 설교로 그 교회를 가꾸고 키워 마침내 미국 굴지의 교회로 만들고 은퇴하였다. 어떤 남자이건 돈 관계, 여자 관계가 흠잡을데 없으면 우선 남들의 존경을 받게 마련인데 교역자는 더욱 그럴 것 아닌가.

하나님의 사업에 몸과 마음을 바쳐 40년 흔들림 없이 살아온 성직자였지만 북에 두고 온 처자에 대한 사랑은 날로 더하였다. 남과 북의 관계가 호전의 기미를 보이던 지난 여름 그는 북경을 통해 사모님과 아이들—40년을 하루같이 그리던 혈육을 만나고자 먼 여행길에 올랐던 것이다.

기쁘게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LA에 사는 H목사에게 북에서 통보한 바에 의하면 K목사는 고향인 신의주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하였다는 것이다. 그 건강하던 이가 왜 갑자기 쓰러졌는가—사인을 규명하라고 나성 영락교회 교인들은 야단인 모양이지만 K목사가 타계하신 것만은 어김없는 사실인가 보다.

북의 사모님은 개가하였다는 소문이 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지. 그러나 40년 수절한 남편을 맞고 너무 부끄러워 그 사모님이 자살했다는 풍문도 있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 K목사도 쓰러졌다는 소문도 전해진다.

어쩐진 사랑의 이야기다. 내가 남자로서 이 세 분 선배에게 경의를 표하는 까닭은 그 분들의 삶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아름다움을 더욱 확실히 믿게 하였기 때문이다. ⊕





현장방문 수질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에서 10년전에 사용금지된 DDT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원수에는 없었던 THM과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정수에서 검출되어 놀라게 하였고, 충청도 지역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극심한 오염으로 상수원으로서 부적합해졌고, 잼버리 세계대회 개최를 계기로 피해쳐진 설악산 지역의 생태계 파괴문제와 핵발전소의 세탁물을 세탁하던 세탁부가 방수능에 오염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 등등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되는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의 정도가 가늠이 넘길 수 없을 지경까지 왔음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시급히 해야할 때이다.

세계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60년대 말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보고서」 발표 이후라 생각된다. 당시 앞으로 1백년 이내에 급격한 자원의 모와 그에 의한 생화화적인 순환의 변화로 지구가 멸

망하게 되리라는 보고는 전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 유엔에서도 1972년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여 다시한번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운동이 시작된 것은 70년대 말경이다. 당시 '생명운동'이라는 명칭하에 교회여성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합성세제 안쓰기' '과소비 추방' '과다혼수 안하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과 의식개혁에 좋은 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 요즘은 한국여성민우회의 '함께 가는 생활협동조합', '정농회 소비조합', '한살림', '공해추방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부아카데미' 등의 단체에서 많은 여성들이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70년대 말의 '생명운동'에 참여했던 경험과 13대 국회의 보사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2년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것은 아직까지 GNP 4천불을 넘어서었다는 우리나라가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후진

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정치인들의 의식이나 해당부처 공무원들의 의식속에는 '성장과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사고가 팽배하다. 그저 어떤 커다란 사건이 발생할 때에야 비로소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법석을 떨고는 그 고비가 지나면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니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허탈하기까지 하였다.

재벌과 관리들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서민들

현재 환경관련 업무는 15개 부처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다. 성장과 개발이 제일이라는 경제부처의 막강한 힘의 틈바구니에서 부보다 행정부 내의 위상이 낮은 환경처가 환경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각종 개발사업에 밀려 쥐꼬리만한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한 환경처가 폭주하는 환경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환경자료와 조사결과 등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관료주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운영도 환경보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에 환경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결집된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법조문마저 사문화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일깨우며 피해자의 고충을 덜기 위한 법률상당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최근의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 상담실 개설은 의미가 있다.

개설 후 접수된 상담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인 막강한 재력을 가진 기업이나, 기업을 은연중에 비호하고 있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에 비하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여러 면에서 약자라는 것이다. 문제의 예방을 위해 혹은 문제가 발생하여 뛰어다니다 보면 환경관련법에 대한 무지와 뻔뻔한 관청 관리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도대체 환경문제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마는 현실 앞에서 할일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미약하고, 환경전문가들도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으며, 문제해결의 난해성에 비해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운동가들도 적고 해서 환경보전운동이나 공해추방운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렇지만 구체적인 각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사례를 통하여 그 해결과정의 역량축적이 우리나라 환경보전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해마지 않는다.

주부가 환경보전운동의 주역이 되자

환경문제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이제는 문제의 폭이 깊고 넓어져 나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래선 해결점을 결코 찾을 수 없다.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서야 비로소 그 절박감을 느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문제가 파생되지 않는 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따라서 전 국민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여성들 중에서도 주부들이말로 바로 환경보전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하고, 또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주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성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으며, 본성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의 사회구조상 사회적 노동보다는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하며 그리고 지역사회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주부들이야말로 바로 환경보전운동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가사를 보통 '살림'이라고 표현한다. 살림이란 죽음의 반대개념이다. 가족의 안위와 생명의 살림을 위해 노력하듯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파괴되어가고 있는 환경을 살리는 일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오면 우리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교육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등 남성들에 비해서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일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주부들이 지역문제해결에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들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피수꾼으로서 누구보다 더 적극적이다.

환경문제 상담실로
개설된 '녹색의 전화'는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법률상담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서구나 일본에서도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이다. 일본에는 많은 주부들이 생활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해서 무공해상품의 제작, 유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서독을 비롯한 유럽에서 80년부터 퍼지기 시작한 제3의 문화운동에서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3의 문화’ 운동에 열성인 서구여성들

서구나 일본에서도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이다. 일본에는 많은 주부들이 생활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해서 무공해상품의 제작, 유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서독을 비롯한 유럽에서 80년부터 퍼지기 시작한 대안문화(=제3의 문화)운동에서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안문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연과의 융화, 자연의 보호, 인권옹호운동, 반핵평화운동, 인종차별반대, 시민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이라는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벡타이 정장 대신 검소한 스웨터나 청바지차림을 즐겨하고, 가공식품 대신 생당근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은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의 폐기물 등의 매카니즘에 길들여져 스스로 과다소비의 노예로 전락해온 현대인들에게는 국외자로 보일지 모르나 분명 환경파괴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문제의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이미 선진국에서 공해산업으로 인정되거나 사용 취소가 되었던 물품들의 사용이 점차 가난한 후진국으로 밀려들어와 악순환이 된다는 점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해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상품들, 즉 합성세제, 1회용 컵이나 아기기저귀, 주방용쓰레기 분쇄기 등등의 생활용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무비판적으로 더욱 다량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필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모든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환경오염문제와 연결시켜 그 사용을 줄이고, 자제하는 생활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환경교육 등 우리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 이 귀중한 생명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여성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